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오라고 한다. 농업은 미래산업이라고 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지를 지원하고 영농자금을 지원하며 정착을 돕겠다고 한다. 농촌의 인구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이 농촌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자주 빠진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아갈 집은 어디에 있는가?"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지를 구하고 농업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 살아 임성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농사를 지은 뒤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과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병원에 가고, 학교에 보내며 살아간다. 특히 이런 자녀를 둔 청년들에게 주거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어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학교와 병원, 생활시설은 가까운 도시에 더 많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농촌 인근 도시에 집을 마련하고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농사는 농촌에서 짓지만 생활은 농촌과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주거는 단순히 집 한 채를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자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며, 농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생활의 토대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기반을 마련해도 농촌에서 오래 살아갈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특히 농촌에는 청년 가족이 실제로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이 부족한 것도 있고, 농촌

마을 인의 주거환경보다 농촌 인근 중소도시의 생활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를 흔히 농업소득이나 노동의 어려움에서 찾는다. 물론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농업만이 아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병원과 학교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집이 있어야 한다.

청년농업인과 주거 문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과 가족이 살아갈 조건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문제는 정책이 이 조건들을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데 있다. 농업정책은 농업을 지원하고, 주거정책은 주택을 다루며, 교육과 교육정책은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그러나 청년농의 삶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활로 연결되어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면 정착은 지체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농 정책의 기본도

달려야 한다. "청년농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청년이 농촌에서 가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까"를 돌아야 한다. 그 질문에는 농지와 농업소득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보육, 의료와 생활권이 함께 들어야 한다.

농촌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사람이 농촌에 남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청년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반드시 농촌이 싫어서인 것은 아니다. 농사를 계속하고 싶어도 가족이 살아갈 기반이 부족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왜 청년이 농촌을 떠나는가 아니라, 왜 농촌에서 계속 살아보고 싶은 청년이 떠나야 하는가.

농민도 집을 구하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민이다. 농촌으로 오라고 말하기 전에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착은 사람을 농촌으로 데려오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이 농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상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학술리진공
· 호남신학연구원
· 주거권기동대 공동대표

하나님의 토지소유권과 민간의 토지평등권은 성경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는 평화신학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의 토지평등권은 가족의 토지평등권뿐만 아니라 민족의 토지평등권도 있는데, 이 민족의 토지평등권이 평화 신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신령이 2장을 보자.

신2:4-5,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자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같이 살아가고 5.그들과 다부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신을 애사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2:9,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과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땅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자 함이라 하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그래서 애굽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고자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다를 침략한 그 민족들을 징벌해 달라고 기도한다(대하20:10-12). 그러자 여호와와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시어 대언케 하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대하20:14-15). 애굽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고자 함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와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

토지 평등권과 평화 신학

가 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2:19, "임은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과하지 말고 그들과 다부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애굽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신 것처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신 것이다.

신30:8, "지극히 높으신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수효 때문에, 레비사파르) 백성들(민족들, 암몬)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던 언어가 다른 그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주시길 때,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효가 정해져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기서 민족의 토지평등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경계를 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민족의 토지평등권은 신성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한 세 민족이 서로 싸우게 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지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선포했다(행17:24-27).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인류 대가족의 개개 구성원이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족을 그 나라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신 것과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대가 '몰아지른'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인류 가운데에도 몰아지른 가족들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의 토지평등권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민족을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셨으므로, 모든 민족에게 토지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아지른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토지평등권은 절대적인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제한적인 토지사용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목사: 박종현(목회) 주무(목회)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주일오후 1부 1:00 2부 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담임 박종현 목사 62360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동 6-1 (창대동) 대표전화: 062-951-1999 FAX: 062-952-5683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벤엘교회 목사: 유남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7:30 2부 9:00 3부 11:00 4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810 광주광역시 북구 오동동 17-1 (오동동) 대표전화: 062-710-0104 FAX: 391-101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목사: 성령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오동동 34 (오동동) 대표전화: 062-952-9595 FAX: 062-952-959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삼촌로 18 (삼촌동) 대표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월곡로 31번지 (월곡동) 대표전화: 062-952-7575 FAX: 062-952-7576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동남동로 100B-3 대표전화: 062-951-1199 FAX: 062-951-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남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2330 광주광역시 광안구 신정동 76-12 대표전화: 062-951-1999 FAX: 062-952-530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622 광주광역시 남구 백산로 70번지2 대표전화: 062-952-1010 FAX: 062-952-1011	대한예수교장로회 거성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2368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11번지24 대표전화: 062-951-9691 FAX: 062-951-9695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창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2287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29번지(신창동) 대표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광주광역시 북구 동북로 10-15 (동북동) 대표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면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7913 전남 곡성군 임면읍 임면로 21-2 대표전화: 061-362-601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434 광주광역시 북구 동북로 20번지 31 대표전화: 062-952-1797 FAX: 062-952-429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성광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901 광주광역시 남구 불산로 17번지 대표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광명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불산로 43 대표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향임마누엘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나주 불향면 봉향로 22번지(봉향동) hbc-122@hbcmail.net 전화: 061-6622-1033 (전통복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섬김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2011 광주광역시 서구 개암로 14-31 (개암동) 대표전화: 062-952-1004 FAX: 062-952-100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0 · 수요일예배 7:30 · 금요일예배 7:30 · 새벽기도회 7:30 담임 유남 목사 62805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10번지 22 대표전화: 062-951-5014 FAX: 062-951-5017